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중에 금년도에 봉헌할 헌금을 작성하여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약성서의 맥잡기>로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오늘 오후 집회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교회의 일년 살림 규모를 확정하는 구역회가 20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위임장에 서명해주십시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용인에 있는 <심소재>에서 열립니다.

주일 점심 시간에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물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생태학적 발자국을 적게 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고 그 일에 성심성의껏 임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당목사실)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자비하신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자기 성찰을 게을리 했던 우리들을 주님의 현존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만을 구했던 히브리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향해 나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천의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음을 실감합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 죽음을 만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말로도 위로 받을 길 없는 가족들의 마음도 살피주십시오. 생명과 평화 세상을 열기 위한 땀흘림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권미숙 권혁순 김준우 우순덕 허경기 전세종 오정숙 정한구 안정숙  
김용태 박정숙 안정숙 정복순

**월정헌금:**

김현진 권 순 윤정화 박옥순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양재성 임미심 정복순 곽혜자 김재흥 김필순 정완수  
김재광 문복순 우순덕 박홍재 문금석 박애순 박옥식 한상익 정영선  
김춘려 조항범 박병구 유증희 이재문 오정숙 김지현 김지은 조문규  
김순복 김주선 이인섭 임승동 백혜숙 이성운 이한림 김명희 이순정  
왕성환 강순배 안정숙 문영혜 최용관 김정선 서정순 김인걸 이예정  
허호범 가족 무명5

**생일감사헌금:** 김기석 안종일 윤성종

**100주년 기념헌금 :** 백묘현 우순덕 권미숙 무명2  
(100주년 헌금 누계: 153,080,000원)

	장혜숙 노순옥 임정자 문영혜 안정숙 박홍재 박호선 최숙화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백혜숙 송양진 이영란 박혜경	장혜숙 정경례 임정자 박경선 박애순 곽권희 허정윤 권미정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정옥영 유경순 박미영 최영혜	심	심
--	---	---	---	---

# 여우 같다

--안정옥

많은 옷 중에서 내가 즐겨 입는 옷은 두어 벌  
두어 벌을 위해 옷들이 장롱 속에 걸려 있다

식탁에 차려지는 그릇은 몇 개, 그 몇 개를  
위해 한쪽에 쓰지 않는 그릇들이 포개져 있다

자주 꺼내 보는 책 몇 권, 그 몇 권을 위해  
수백 권의 책이 너무 오래 먼지를 뒤집어썼다

몇 사람과 만날 뿐, 그 몇 사람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별떼처럼 윙윙거려야 했다

두어 벌 옷 때문에 세상의 장롱 속이 팍 찼다  
몇 개의 그릇, 몇 사람 때문에 세상은 포화다

눈물겨운 욕망들, 끝없는 집착, 더, 더,  
보다 더 나은, 이 혼자 나이를 먹어 늙어터졌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밝아진 눈으로 새로운 삶을 내다보십시오. 주님의 명을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 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조문규 권사	기도 : 정옥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김훈동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정길    고광송    강순배    최숙화    서정순
	헌금위원	김철수    강순배(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몰 두

확대경은 태양 빛과 열을 잡아 한 점에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전투에 있어서도 올바른 시각, 올바른 장소에 모든 전력을 집중시킬 줄 안다면 전투에 이기기 위해 커다란 규모의 군대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부대를 재빨리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넉넉하기 때문이다. 몰두는 근본적으로 행동의 양식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이다. 따라서 당신이 내적 생활의 일치와 조화에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풀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당신의 찬장이나 책상이나 핸드백이나 호주머니 속에 쓸데없는 물건을 잔뜩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일들로 머리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덜게 될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처리하라. 같은 시간에는 하나의 문제에만 전념하라. 하나의 일을 끝내 놓고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되, 그 일을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 있을 경우에만 하라. 책이나 잡지나 편지 따위들을 뒤적거리기만 하지 말라. 그 중에 한 장이나 어떤 기사를 읽든지 답장을 쓰든지 하라. 그렇지 않거든 차라리 모든 걸 덮어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마음이 흩어지고 쉬이 지치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주의를 풀어 놓기 때문이다. 과일을 많이 따러거든 전지에 인색치 말라. 탐스러운 꽃을 피우려거든 그 중에 몇 그루는 속아버려라.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특정한 일에만 관심을 쏟아라.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다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만일 호스가 구멍 투성이라면 그 끝에서는 물방울 몇 개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는 곳을 막아라. 그러면 수압은 정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당신이 몽상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현실세계는 뒷전에 놓여 있다. 항상 지껄이고 있으면 생각할 틈이 없다. 아주 조그맣게 성가시는 일에도 참견하러들면 그것은 정서의 낭비다. 그래서 필요할 때 모든 노력을 집중, 몰두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난 몽상을 버릴 수가 없어. 난 혀를 안 놀리고 가만있을 수 없고, 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옳은 말이다. 그것은 생명체의 움직임에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필요할 때에 이

용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것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정돈해 놓아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조용히, 깊은 신뢰를 갖고 맡겨드림으로써 할 수 있다.

생명체의 움직임들—예를 들어 생각, 계획, 감정, 희망, 본능, 정서, 실망, 유혹 등—은 정돈된 목표나 방향도 없이 분출하곤 하여 당신의 힘을 소모시키는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이 강력한 에너지의 분출을 이용하려면 일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 것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무슨 일이나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시킨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의 내적 움직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광적인 기도는 아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주어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의 모든 근육과 신경 조직에 느긋한 휴식을 주고 나서 모든 것을 성부께 바치면 된다. 주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나서 당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날마다 잠깐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라.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기분이 상했을 때, 바쁠 때, 긴장되었을 때에는 잠깐 사랑의 봉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은 언제나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고 있다면, 만일 당신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련에 가득 찬 것이라면, 만일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활동이나 직업이나 인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노예상태나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의식적으로 기꺼이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새로운 자유가 샘솟아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가다듬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유는 당신의 인생이 외적 필요성에 지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곳에 현존하시며,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알고 보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지나간 고된 일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고 순간 순간의 필요에 끌려가는 대신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셸 파스트, <<참 삶의 길>> 중에서